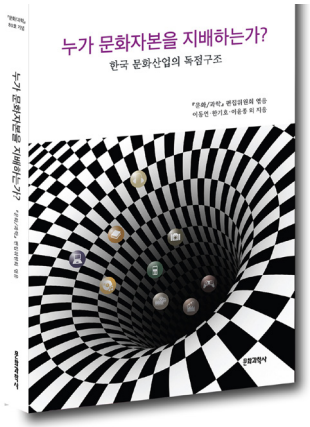
문화/과학
문화이론전문지 Newsletter
n. 06 | 2015년 02월호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문화/과학』편집위원회
80호 발간기념 특별판 단행본

편집위원회 회의에서 몇 번의 논의를 거친 후에 처음으로 만드는 특별호 단행본의 주제를 한국사회의 문화자본의 독점 현실과 문화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것으로 정했다. 2000년 이후 한류와 케이팝으로 대변되는 문화산업의 급속한 발전을 분석하는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대부분 산업적인 성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대학교재 성격을 가진 책이나, 한류의 문화현상을 피상적으로 분석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류와 케이팝을 경제적인 관점으로 분석한 책이든, 문화적인 관점에서 분석한 책이든 하나는 문화,다른 하나는 경제를 배제한 채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 방식이다. 문화산업이 어떤 방식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문화산업의 자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재생산되는지에 대해 총괄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한국 문화산업의 특이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연구지점이다.



한국 문화산업의 글로벌 성장은 과거와는 달리 문화산업이 자기 시장 안으로 흡수 축적되면서 가능해졌다. 말하자면 한국 문화산업의 성장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서 가능했는데, 하나가 자본의 축적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의 독점이다. 자본 축적은 1990년대 말 김대중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의한 국가자본의 시장 투여를 통해 가능해졌다. 주지하듯이 김대중 정부는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법제정, 기금조성, 지원기구의 혁신을 이루어냈다. 문화산업진흥법제정,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영화진흥법 제정과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영화진흥위원회의 전환,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류의 문화적인 트렌드는 연예기획사, 영화제작사 등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한류의 자본축적은 정부의 문화산업 진흥정책에 따른 투자확대 및 공공지원을 통해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산업의 진흥정책에 따른 국내 문화산업 종사자들의 자본축적의 확장은 산업근대화 시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성장한 것과 유사한 방식처럼, 독점을 통해 가능했다. 영화산업의 비약적인 성장은 다양한 영화콘텐츠들이 관객들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몇몇 소수의 흥행영화들이 영화상영관을 독점했기 때문이다. 영화배급과 상영을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자본이 형성되면서 영화시장을 통제하는 주체는 제작사나 영화감독이 아닌 자본 그 자체가 되었다. 케이팝을 제작하는 소수의 대형 연예기획사가 글로벌한 시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은 차별화된 기획과 제작능력만이 아니라 국내 음악 **...(이야기 더보기)**

편집위원 칼럼

노인과 진보

권명아
(동아대학교 국문과 교수)

팔십이 넘은 할머니가 일흔 어름의 할머니에게 "한창 좋은 때다"라고 말하는 풍경이 참 먹먹했던 적이 있다. 늙음과 젊음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 몇 백 년을 살았는지 가늠하는 게 헛된 고목 아래 앉아 나이듦에 대해 묻는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곱씹어본다. 유용하고 무용한 세상의 지식을 많이도 들춰보았지만, 나이 들며 마주하는 낯설고 두려운 질문에 대해 그 지식의 서재에서 답을 찾기는 참으로 어렵다. 세상을 향해 서슬 퍼런 목소리를 내고 조언과 진단을 서슴지 않는 지식인에게도 나이 들며 부딪치는 질문은 그저 홀로 침잠해야 하는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된다. 물론 건강에서 재테크까지 나이 들면서 챙겨야 하는 일들을 조언해주는 정보는 넘쳐난다. 그러나 나이듦과 정치라는 두 항을 이어주는 지식이나 담론은 거의 부재하다.

다만 세대 논쟁만이 뜨겁다. 세대 논쟁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와 나이듦에 대해 생각해볼 수는 없을까? '진보, 혁명, 변화.' 이런 단어에서 우리는 암암리에 젊음, 청춘을 연상한다. 보수가 '늙음',오래됨과 자연스레 연결되듯이 진보는 언제나 '젊음의 것'이었다. 이는 근대 주체가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의 산물이다. 그러나 '보수=늙음' ...(더보기)

우리 시대의 여성혐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 온 여성성에 대한 고정관념 및 강박적 이상과 판타지일 뿐, 물질성을 띈 개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현실에서의 여성이 그 틀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 여성은 당연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By 손희정 (중앙대학교 강사)

오늘 아침. 일찍부터 <녹지>에 송고할 여성혐오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책상에 앉았다가 못 볼 꼴을 보게 되었다. '남남북녀 결혼 주선'을 전문으로 하는 한 결혼정보회사의 프로모션 웹툰을 본 것이다. "북한 여성의 장점"이라는 제목의 이 웹툰은 "성형을 안 해도 예쁘다, 나이 차에 신경쓰지 않는다, 가난한 국가(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검소하다, 군대에 다녀왔으므로 개념이 탑재되어 있다, 남한 여성들처럼 결혼 조건을 재지 않는다, 동방예의지국의 효를 배웠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잘한다, 여타 국제 결혼과 달리 혼혈이 아닌 순혈 자손을 얻을 수 있다" 등을 북한 여성의 장점으로 꼽고 있다. 물론 '그녀'는 순진무구하지만 남편 앞에서만은 색녀로 변신한다는 고리타분한 성적 판타지 역시 (아니나 다를까) 등장한다. 이 웹툰은 그야말로 21세기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를 형성하는 다양한 이데올로기를 열 장의 jpg 파일에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으며, 일종의 '민족지적인 사료'로 취급되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였다. 그렇다면 오늘의 '여성혐오 이야기'는 우연히 마주친, 그러나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이런 웹툰을 중심으로 풀어내도 괜찮을 것 같다.

우선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해보자. 그토록 여자를 사랑해서 여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살고싶어하는 남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가 어떻게 여성혐오적일 수 있을까? 혹은 그런 광고에 현혹되는 남자들을 어떻게 여성혐오적이라고 ... (더보기)

문화과학 월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계간 『문화/과학』 정기구독제를 월 후원회원제로 전환합니다.

『문화/과학』은 71호부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젊은 편집위원들을 영입하고, 새로운 편집체제로 독자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는 실질적인 도약을 위해 독자들의 외연의 폭을 넓히려는 대중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계간 『문화/과학』은 정기구독제도에서 월 후원제도로 전환하여 출판 재정을 안정화하고 다양한 독자 서비스 활동을 벌이고자 합니다. 계간『문화/과학』편집위원회는 『문화/과학』이 한국을 대표하는 진보적 문화이론지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술인에게 '복지'와 '사례비'는 왜 정당한가?: 2014년 서울시 창작 공간 국제심포지엄 리뷰

예술 창작의 즐거움, 예술의 에토스라는 것이 경제적 빈곤을 감내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예술가들만의 상징적 보상체계라고 말들 하지만, 사실 이러한 주장은 예술계 내의 예술가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려는 잘못된 근거에 불과하다.

By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

지난 11월 27일 서울시청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주최하는 제6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 "노동하는 예술가, 예술환경의 조건"이 성황리에 마쳤다. 주최 측의 전언으로는 심포지엄 2주 전에 이미 참가 예약이 완료되었고, 사전 등록을 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일종의 기관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자리 하나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을 정도로 있었다고 하니, 웬만한 아이돌 그룹 콘서트 부럽지 않은 행사였다. 한편으로 오늘날 예술가들의 경제적 형편을 화두로 삼은 이번 심포지엄에 예술계가 많은 관심을 보였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예술계의 어려운 생존 조건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해보니, 행사의 흥행이 꼭 반갑지는 않아 보인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쟁체제와 삶의 양극화가 급기야 예술의 장 안으로까지 영향을 미쳐 예술가들의 생계와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을 우리는 2010년 인디 뮤지션 이진원과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의 죽음을 통해 눈으로 직접 목도한 바 있다. 모르긴 몰라도 생존의 위험에 내몰린 가난한 예술가들과 이들에게 어떤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지를 고민하야 하는 문화예술 관계 기관 담당자들에게는 이 심포지엄의 주제가 매우 ...(더보기)

유럽여행기(3)

김성일 편집위원의 유럽여행기(3) -무한 자유와 외로움 사이에서

문제는 나 홀로 여행이 낭만적이면서도 고달프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배낭여행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중심으로 지구상에 하나뿐인 루트를 짠다는 점에서 매우 즐겁고 행복하다. 내 여행 스타일과 신체 리듬에 맞게 짠 일정표는 절대 자유의 징표이다. 대도시와 주요 관광지뿐 아니라 소도시의 아기자기한 골목길, 확 트인 호수를 힘차게 누비는 크루

즈 여행, 울창한 숲길을 걷는 하이킹, 여행 일정을 빨리 끝내고 숙소로 와 즐기는 낮잠은 절대 자유의 참맛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여행의 모든 일정을 혼자 준비하고 뜻하지 않은 트러블 발생 시 혼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은 매우 큰 짐이 아닐 수 없다. 나 홀로 여행의 최대 난제는 식사이다. 영어나 방문국 언어로 쓰인 메뉴판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음식을 시켜야 하는 고충, ...(더보기)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언론에 소개된 내용 보러가기

[책과 삶]독점적 자본에 휘둘리는 문화계 – 경향신문

[문화-학술]다른 생각 불허하는 문화권력 독점 현상 – 한겨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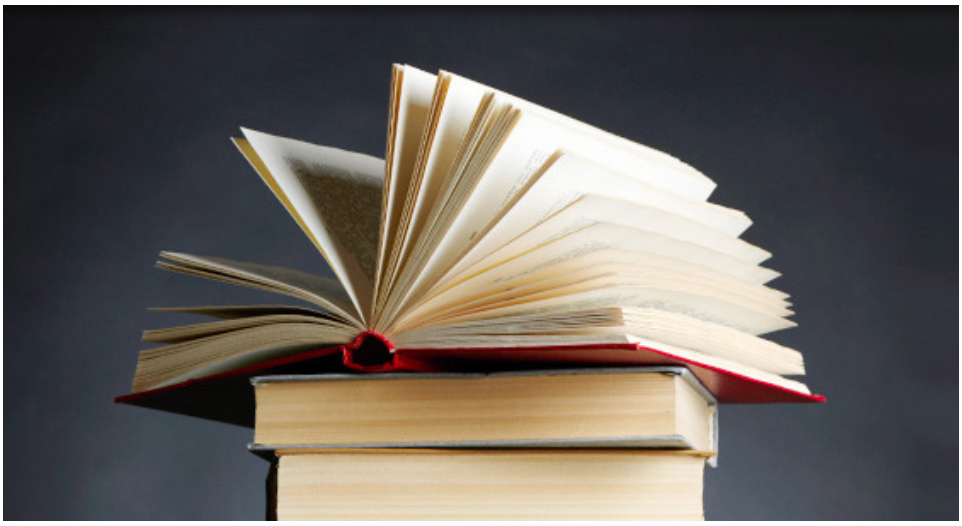
[연예/방송]한국 문화산업의 독점구조 '누가 문화자본을 지배하는가?' – 뉴시스

콜로키움 후기

〈아프리카 나우: Political Patterns〉 전시회 연계 콜로키움

〈글로벌 문화형성과 디아스포라의 기억들: 이주, 문화지리, 문화정체성〉

전시회와 연계하여 지난 1월 23일 <글로벌 문화형성과 디아스포라의 기억들: 이주, 문화지리, 문화정체성>이라는 주제의 콜로키움이 열렸다. 콜로키움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인종문제 및 다민족 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 봄으로써 한국 사회에서 본격화되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의식과 이에 따른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고자 서울시립미술관이 기획한 것. <문화과학> 편집위원들이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로 대거 참여하였고, 콜로키움은 방청석이 꽉 찬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더보기)



연구자료

– 각 제목을 클릭하면 연구자료집 원문을 보고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선방안 국회토론회〉

2013년 예술인복지법 개정안 병합심사 중 아래와 같은 전문위원 의견이 ㄹ된 것에 대하여 강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태조사에 있어 계약서 제출 의무화에 대하여 모 전문위원은 “계약서 제출 요구는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고,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강제하는 것 ....(더보기)

〈사회적자본시장과성장자본〉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회영향투자의 투자대상인 사회적 기업의 특수성과 관련 있다. 사회적 기업은 시장원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조직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문제가 시장실패 요인을 안고 있다(라준영, 2013). 그래서 일반 영리기업에 비해 수익성이 높은 기업이 제한적이며, 투자자가 기대하는 재무적 수익을 기대하기 ...(더보기)

〈사회적기업생태계와 정책혁신〉

그러나 사회적 기업 지원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는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사회적 기업 생태계의 동태적 발전 과정을 진화론적 기반 없이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국내 연구의 경우 대부분 영국 , 미국 등의 국가의 제도적 환경과 정책을 비교하여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제도, 환경적 조건들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 해외 연구의 경우에도 사회적 기업의 정의 , 배경, 역사, 유형, 제도, 환경의 국가 간 차이 등에 관한 연구가 ...(더보기)

문화연대의 행사 보러가기 (클릭)

1. 쌍용차 노동자와 함께하는 굴뚝콘서트: 토요일 토요일은 굴뚝에서!

○ 일시: 2015년 2월 14일 오후3시 | 장소: 평택 쌍용자동차 앞

○ 주최: 뮤지션유니온, 문화연대, 예술인소셜유니온,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2. 행동하는 기억 4.16

○ 일시: 매주토요일 16:00 | 장소: 광화문광장

제 11회 <문화/과학> 북클럽

『신자유주의 금융화와 문화정치경제』 강내희, 문화과학사, 2014

일시: 2015년 2월 24일(화) 오후 5시-7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세종문화회관 뒤편 마당)
문의: 02-745-1603
참가자: 강내희(중앙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저자)
조형근(한림대학교 연구교수, 사회)
서동진(계원조형예술대학교 교수, 토론)

동정

◆이동연
-1월 23일 제3회 <세운포럼> 참여 <세운포럼, 무엇을 할 것인가?> 토론
-1월 23일 문화과학 서울시립미술관 공동주최 심포지엄 <글로벌 문화정체성의 이주의 기억> 사회자 참여
-1월 28일 2015년 자유인문캠프 문화과학 주관 강좌 <재난의 통치, 통치의 재난> 강의
-2015년 2월 5일 돌곶이 문화예술마을만들기 포럼 참여 발표

◆문강형준 · 정원옥
- 세월호 작가기록단이 기획하고, 창비와 한겨레21이 주최하는 <고통을 마주하기: 『금요일엔 돌아오렴』 깊이 읽기> 행사에 정원옥(3월 6일), 문강형준(3.13) 편집위원이 참여, 시민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장소 미정.

신임 편집위원 영입

신임편집위원을 영입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손희정(연세대 영문학과 졸, 중앙대 첨단영상대학원 박사, 중앙대 강사)

◆오혜진(성균관대 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문학평론가)

◆강신규(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박사수료, 문화사회연구소 연구원)

◆김일림(동경예대 애니메이션 박사,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문화/과학』을 만드는 사람

편집자문위원/ 강내희 김세균 손호철 심광현 이득재 임춘성
편집위원/ 강신규 강정석 권경우 권명아 김성일 김영선 김일림 김정한 노명우 문강형준 박소현 박자영 서동진 서영표 손희정 오창은 오혜진 이광석 이기형 이기훈 이명원 이윤종 이지영 임동근 정원옥 정정훈 조동원 조선령 조형근 주은우 천정환 최영화 최원 최철웅
편집인/ 이동연
발행인/ 손자희
편집/ 연구모임 아프픔(디자인: 그래피크제이) | 뉴스레터/ 정원옥 (디자인: 이안홍빈)